

Studio DAC:

아트 클래스 - 토크

[TEXT-읽기] 희곡

일시

2025. 12. 19(금) 오후 7:30-9:00

장소

Studio DAC

두산아트센터

교육 프로그램

2025

겨울

두산아트센터 투어

두산아트스쿨: 미술

Studio DAC: 아트 클래스

Studio DAC POST

이야기를 말하다 - 희곡있습니다!

김도영

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'더 나은 한 걸음'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듯이, 저도 그렇습니다.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헤매면서 말이지요....!

우스갯소리지만,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.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두 가지를 해보라. 하나는 쇼핑이요, 하나는 수다다. (이 농담의 진짜 클라이막스는 되려 스트레스가 더 지독하게 쌓일지도 모른다는 아이러니입니다!)

네, 그래서 오늘은 잠시 수다를 좀 떨어보려 합니다. 기왕이면 희곡에 대하여. 희곡이야말로 수다의 향연이고, 수다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그 밑에 가려진 무언가니까요.

사실 말이지요, 업계에서도 희곡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. '대본'이라는 말이 더 통용되고, 익숙한 말이니깐요.

그래서 '희곡'은 공적인 문서나 그러한 자리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. 언젠가 희곡이라는 말은 소멸해버리는 게 아닐까? 생각하게 되네요. 그래서 오늘은 끈질기게 '희곡'이라는 단어를 붙들여 봐야겠습니다.

그렇다면, 정말로 희곡은 무엇일까요?

'무대를 전제로 만든 대본'이라고 일컫는 희곡은 문학일까요?

공연화가 된 적 없는 희곡 출판은 가능할까요?

오늘만큼은....! 무대를 전제로 하지 않은, 이야기로서의 희곡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

"뭐 하고 있었어?"

"아, 방금 밥 먹었어."

"그 전에는 뭐 하고 있었어?"

"일 했지."

"그 전에는?"

"그 전에? 뭐, 일 하기 전?"

"그 전에."

"쟤지... 어, 잤어. 자고 일어나고."

"그 전에는 뭐 하고 있었어?"

"언제?"

"그 전에."

"자고, 일어나기 전에?"

"그래, 그 전에."

"무슨 말이야? 자고 일어나기 전에 뭘 했냐니?"

"그 전에 말이야. 자고 일어나기 전에."

"잖아. 그리고 일어났잖지."

"그 전에는?"

다소 하찮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.

어쩌면 무의미해 보이는 수다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는...  
그것이 희곡일지도요.

김도영 (극작가)

과거, 명절 단골 만화 『머털도사』 속 왕지락을 향한 머털이의 분노와 복수심을 보며 머털이는 무슨 마음일까 궁금했고, 만화 『배추도사 무도사』의 할미꽃 전설 편에서 산에서 얼어 죽고만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다. 저 할머니는 무슨 마음으로 죽었을까. 우스갯소리 같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궁금해지게 된 내 인생의 시발점이다. 역사극과 시대극을 좋아하며, 좋은 이야기는 발이 달려 스스로 제 갈 길을 간다는 믿음으로 글을 쓰는 중이다. 2013년 단막극 <심야 정거장>으로 데뷔했다.

1. 기시다 구니오 <종이풍선>, 김정진 <15분간>
2. <오이디푸스>
3. 사무엘 베케트 <고도를 기다리며>
4. 고연옥 <처의 감각>
5. 윤영선 <임차인>
6. 존 패트릭 샌리 <다우트: 우화 (Doubt: A Parable)>
7. 마사 노먼 <잘 자요, 엄마>
8. 와즈디 무아와즈 <화염>
9. 이노우에 히사시 <아버지와 살면>
10. 라오서 <찾집>
11. 플로리앙 젤레르 <아버지>, <어머니>, <아들>